

제 7 강 자크 라캉의 주체의 형성과 분열

◆ 오이디푸스콤플렉스와 주체

▲ 강의에 앞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단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나타난 주체의 시선과 대상 a의 응시를 검토하기 요게 다음주에 할 것인데요.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시선과 대상의 응시 문제에 앞서서 오늘 일단 라캉의 줄여서 에크리에 서술된 주체의 형성과정에서 시선과 상상적인 것 그리고 욕망에 대해서 라캉의 에크리 쉽게 풀이해놓은 김석 선생님의 에크리,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요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림은 오늘 적절한 예가 벨라스케스의 <가로누운 비너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자크 라캉

우선 자크 라캉(Jaques Lacan)하면 ‘프로이트의 귀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충실하게 계승하면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프로이트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믿었던 의식 뒤에 억압된 무의식의 층을 발견하고 억압이 심리 문제를 발생시키는 좁은 의미의 억압과 넓은 의미의 억압 즉 사회적 억압이 서로 밀접한 관계되어 있다고 입증하고 있는데 라캉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이트와 라캉과의 관계 특히 프로이트에 영향을 받은 라캉의 문제는 제가 거기 필기해놓은 ‘자크 라캉 프로이트에 복귀’ 홍준기 선생님의 글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이 과학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처럼 라캉도 정신분석이 과학이 되어야 하며 자아의 무의식을 드러내면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보다 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 챕터 에크리에 나타난 주체의 형성과정 중 상상계와 응시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라캉에 있어서 프로이트의 복귀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적 생물학적 문제보다도 언어학적으로 정신분석학을 풀이해놓은 것이 라캉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에크리의 주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있으며 에크리에 있어서 상상계와 응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도둑맞은 편지』를 통해서 본 라캉의 주체관

에크리는 28 개의 논문이 7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의 논문은 도둑맞은 편지에 대한 세미나로 에드가 알런 포우의 우화를 기표가 주체를 형성한 첫 번째 원인이자 시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맞은 편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라캉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정에 편지가 왔는데 왕비가 편지를 읽고 있다가 아무래도 비밀스런 편지이기 때문에 읽고 있는데 갑자기 대신하고 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디다 숨길 시간도 없고 해서 마침 읽다가 바로 탁자위에 올려놓은 데 아무래도 비밀스런 편지라 어디다 숨겨놓으면 좀더 의심이 가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경험이 있겠지만 오히려 개방되거나 아무렇지도 않고 놓으면 오히려 의심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왕비가 편지를 읽다가 탁자에 편지를 올려놓았는데 왕은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약삭빠른 대신은 아무래도 편지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해서 빨리 자기가 가져온 다른 편지와 바꾸어서 가져갑니다.

그때 왕비가 아는 척하고 저지하면 아무래도 들통이 되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도둑맞게 됩니다. 대신이 자기 집에 편지를 갖다 놓았는데 그것을 알고 그 다음날 경찰청장한테 부탁을 해서 편지를 되찾아오기를 명령을 내렸는데 결국은 경찰들이 가서 아무리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역시 경찰들도 눈에 보이는 곳은 제대로 찾지 않고 여러 군데 은밀한 곳이라든지 어디 숨겨 놓을만한 곳을 찾아보니 편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명탐정 뱀뱀한테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뱀뱀이 다시 대신의 집에 가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다 숨겼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올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비가 탁자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뱀뱀이 생각하기에 대신도 같은 식으로 생각했죠.

그러면 대신도 왕비와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벽난로에다가 구겨진 채로 다 볼 수 있고 아무나 다 볼 수 있을 채로 귀중하지 않은 것처럼 비밀스럽지 않을 채로 다 볼 수 있는 벽난로라는 공간에 편지를 놓은 것을 발견하고 결국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화를 통해서 보면 그 우화 속에서 주인공이 왕도 아니고 대신도 아니고 뱀뱀도 아니고 결국은 도둑맞은 편지로 옮겨 다님으로 인해서 편지가 옮겨 다니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플롯이 구성되고 거기에 맞게 주체가 형성이 되는 것을 잘 알려주는 이해하기 쉬운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라캉도 이와 같은 도둑맞은 편지의 예를 들면서 **모든 문자, 글씨, 이런 기표들이 어떤 주체가 기표나 문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표와 문자가 하나의 어떤 주체를 형성한다**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즉 모든 것은 문자와 더불어 시작하고 문자는 도둑맞은 편지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새로운 사건들과 의미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상징계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상징계의 구성요소인 기표에 의해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에 라캉은 편지에 대한 시선과 소유여부에 따라 주체의 위상이 달라지므로 상징계가 인간의 운명과 역할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그래서 편지 레터가 문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에크리가 편지의 유사성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편지는 반드시 수신에게 도달되지만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고 이손 저손으로 돌면서 주체들을 반복의 구조 속에 편입시켜 주체는 기표에 의해 대리되기 때문에 담론 속에 출현하면서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둑맞은 편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체는 담론 속에 출현하면서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크리는 상징계와 주체의 관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시 세부개념을 통해 다루면서 각 논문이 서로의 의미를 보완하도록 라캉 특유의 논리적 시간개념 사후개념을 따라 배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개념은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앞에서부터 차례로 어떤 주제나 의미가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의 주제가 앞선 주제의 의미를 드러내어 보충해주는 프로이트가 이미 언급했던 사후작용의 논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크리에 나타난 주체형성과정 중에서 문자 특히 기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살펴보았구요.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주체 생성

그러면 주체형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이것은 이미 프로이트가 자신의 정신분석학에서 밝힌바가 있는 것이고 다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갖다가 라캉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주체형성과정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주체의 성적 정체성과 인격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밝혔듯이 라깁도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주체형성의 필수과정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이트와 라깁의 차이점은 라깁은 어떤 성애적인 차원보다는 주로 상징계의 작용과 연관시켜 추상적인 개념화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깁은 오이디푸스과정을 주체가 어머니의 욕망에 종속된 상상적 동일시에서 벗어나 아버지가 구가하는 상징계의 질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주체가 아버지의 이름을 수용하고 기표의 주체로 탄생하므로 부성은유이라고도 합니다.

▲ 상상계 - 타자의 첫 번째 출현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상상계, 거울단계인데요. 상상계는 아이가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인데 거울 속에 비친 타자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는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되는 아이를 말하고 있는데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의 아이는 자기의 몸을 보면서 자기 몸이 하나, 눈, 얼굴, 다리, 팔이 하나로 우리 성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에는 팔 다리가 다 따로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거울을 봤을 때, 거울에 자기 몸이 온전하게 하나로 통일된 모습을 보고서 그때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자기가 주체로서 이해하게 되느냐를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보고 놀라고 그때 자기에 있어서 타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아이의 첫 번째로 분열되는 과정이라고 하고 자기와 거울 속에 비친 타자적 모습의 동일시함과 동시에 거울 속에 비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어머니와 자기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타자적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아이가 자아로 형성되는 단계에서 **이미지가 자아의식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말해주는 단계입니다. 아이와 어머니의 결합이 결국은 상상적 남근을 중심으로, 즉 거울 속에 비춘 어머니의 모습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는데 이때 아이는 그러한 결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상적 남근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어머니의 욕망에 종속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의 욕망에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상상적 남근**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상상적 남근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의 허구**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때 어머니의 결여에 의한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고 이러한 **상상적 동일시**는 결국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어떤 실제적인 아버지라기보다는 언어, 말이라는 상징적의미의 아버지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상상계 거울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주 적절하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크시대의 스페인 작가 벨라스케스의 <가로누운 비너스>라는 작품을 보면 여기에 비너스가 앞에 거울을 들고 있고 옆에 큐피트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신의 모습은 실제로 죽을 때까지 정면에서 볼 수가 없죠.

우리가 결국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반영된 결국 나의 모습 그때 어떻게 보면 나의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나고 타자적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로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비너스가 거울을 보면서 과연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허위인가 거짓인가를 갖다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제 3자, 바로 여기 있는 큐피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

비너스를 보고 거울속의 이미지도 보고 두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지만 거울 속에 비춰진 이미지라는 것이 정말 허위인지 아니면 동일한 모습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상계는 결국 아버지의 규율에 의해서 두 번째의 상징계로 넘어가게 된다.

▲ 상징계 - 동일시

첫 번째 시기에서 상상적인 남근이 허구적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어머니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 하겠지만 요 단계에 와서는 첫 번째의 결여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여에 의해서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시기는 상징계의 대표인 아버지 기표에 동일시하는 함으로써 주체가 형성되는 단계인데 이때 남근을 소유한 상상적 아버지가 개입하면서 아이와 어머니의 결속은 깨어지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합니다.

이때 깨지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어머니의 존재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신경증을 넘어서고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말에 의해서 지시되는 아버지의 역할이 수행되면서 **아이는 아버지가 욕망에 종속된 존재임을 보면서 자신이 어머니의 남근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거세의 본래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에 의한 어머니의 박탈 혹은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박탈은 욕망을 좌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하게 되는데 아이가 어머니의 욕망에 종속된 상상적 동일시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망에 주체가 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두 단계는 시간적으로 선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작용합니다. 단지 이 두 단계가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주체를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도 같이 늘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에서도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 실재계 - 주체형성

상징적 동일시를 통해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종결되는 순간으로 상상적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 아버지가 등장하여 남근의 소유자로 내세우며 바로 아버지란 이름의 기표에 동일시함으로써 주체가 상징계에 안착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상징계의 대리자 즉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제 아이는 상상적 남근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상상적 남근이 된다는 것도 포기하고 자신의 욕망을 아까 두 번째 단계를 찾게 되면서 결국 상징계에서 남근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때 남근은 주체가 욕망하는 것을 지시하는 기표입니다.

그래서 남근이라는 것이 라깁은 phallus 실제 생물학적으로 남성들이 갖고 있는 페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의미인 언어적 기표를 뜻하기 때문에 phallus** 라고 합니다.

이러한 남근이 지시하는 기표는 주체가 욕망하는 것이고 이처럼 결국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상징화 과정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상징화하는 과정이 부성은유를 통해서 극복됩니다. 이 부성은유를 통해서 극복되는 아버지는 부성은유라는 것은 은유와 환유의 과정이 함께 포함이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서 주체가 어떤 상상적 동일시에서 벗어나서 다시 상징계에 들어오면서 자기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결국 실재계에서 실재계의 아버지의 등장에 의한 남근, 기표 아이가 욕망하는 기표를 통해서 결국은 주체 형성의 단계에 들어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갖고 있는 주체 형성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인 **시선과 상상적인 것의 관계**는 바로 **두 번째 상상계 단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단계 중에서 다시 첫 번째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상상계에서의 거울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벨라스케스의 <가로누운 비너스>의 거울이 갖고 있는 의미처럼 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결국 그것은 주체의 분열을 통한 시선과 응시의 분열을 의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캉의 어떤 정신분석학은 철학이 중요시하는 의식과 지식의 본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상상계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라캉은 사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상상계에서 나타난 이미지라는 것이 굉장히 가짜이고 허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가 어떤 공격성도 느끼게 되고, 좀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상계라는 것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상계를 통해서 또 철학 전통철학이 중요시하는 의식의 본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 상상계의 분열

▲ 라캉의 상상계

라캉은 실체가 아닌 거울에 투사된 이미지에 매혹되는 이런 거울단계가 결국 주체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필연적인 계기이자 인간의 모든 지식이 허구적인 것에 기초하는데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로서 형성되기에는 흔히 이야기 하는 거울을 통해서 아이가 오인하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울에 투사된 이미지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필연적인 계기이고 모든 지식이 허구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든 지식이 항상 명징하고 절대적으로 거짓인 허위 부분을 갖다가 지식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지식도 허위적인 것 안에 그 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상계는 주체를 소외시키고 기만하지만 거울을 통해서 주체가 분열되기 때문에 분열과정 속에서 거울을 바라본 아이는 스스로 소외과정을 겪게 되고**, 아, 저게 가짜가 아닌가 하는 어떤 기만하는 속에서 그런 것을 겪게 되는 것이 상상계인데 그렇지만 주체가 타자와 맺는 관계에서 불가피합니다.

결국은 상상계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의 주체가 분열되면서 타자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어떤 타자와의 관계 맺음을 꼭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상상계에 의해서 공격성과 소외, 언어의 왜곡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상상계라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을 다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시선과 응시의 분열

첫 번째 거울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선과 응시의 분열, 그래서 여기 시선이라는 것은 자고
라강은 눈, 제가 이제 다음주에 강의하게 될 것과 관계가 되는데 눈이라고 쓰고 있고, **눈은 실제적으로
몸에 있는 눈, 응시라는 것은 주체가 아닌 대상 알 수 없는 저쪽에서 오는 시선**을 응시라고 봤을 때
시선을 어떨 때는 눈 일수 있고 어떨 때는 단순히 눈이 아니라 눈이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시선은
바라보는 주체일 때는 시선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응시는 대상에서 주체가 아닌
이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단계에서 시선과 응시 분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상상계의 작용은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이미지에 대한 주체의 나르시시즘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주체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통해서 옛날의 나르시시스가 그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거기에 아름다움을
느껴서 결국 거울에 비춘 모습이 내가 아닌 타자로 생각하고 그것을 잡기위해서 결국 물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한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거울이미지를 나르시시즘적인 시선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나르시시즘적인 주체화 첫 번째 단계인데 결국은 나르시시즘적인 시선은 ‘자기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나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애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거울단계는 아동이 자기 신체라는 개념을 획득하고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행해지는
인격발달의 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라강은 아이의 성장을 거울 속 이미지가 자아의 형성에 토대가 되고 외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밝힌 프랑스 심리학자 알롱의 이론에 영감을 받아, 이미지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형성된
자아는 결코 통일되고 안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의 소외와 분열을 초래하므로 이미지나 허구이고
주체성을 형성하는 진정한 물질적 토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거울에 비친 이미지는 실제 세계의 충실한 반영이 아닌 주체의 욕망이 투영되므로 바라보는 사람의
환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라강은 거울 속에 비친 이미지가 우리가 복사할 때 이미지 그대로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거울속의 이미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반영이 아닌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욕망하는 주체의 어떤 환상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울 속에 비춘 이미지는
어쩔 수 없이 허구와 환영까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의미를 띄고 있다고** 라강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거울 속 이미지를 바라보는 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후 6 개월
18 개월 되는 아이는 아직 몸이 미숙해서 자기 몸이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는데 반해 결국은 거울 속
이미지는 완벽하게 통일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거울 속 이미지를 아이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거울 속에 가시화된 완벽한 형상을 감각적으로 확인하고 도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르시시즘의 최초의
순간이고 아이가 이미지를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거나 또는 거울에 비친 어머니, 그러니까 거울속의
아이 옆에 항상 어머니가 같이 있으니까 아이가 거울을 바라봤을 때는 옆에 있는 엄마도 거울 속에
나타나는 그래서 그 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기와도 동일시하고 거울에 비친 엄마와도 동일시합니다.

거울에 비친 어머니를 동일시하는 거울단계에서 실제 몸의 감각과 그것에 대해 투영하는 이미지의 괴리가
은폐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 자아의 형성과정과 타자적 자기 이미지

바로 그 순간이 하지만 주체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은 이미지의 매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나를 알아보거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보는 것은 결국은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도 **자기를 알아보는 것은 이미지의 어떤 매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체 형성과정에서 타자적 이미지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거울 속에 나타난 바로 자기가 분열된 주체가 분열된 타자적인 이미지를 통해서만 나의 자의식을 갖게 되고 나의 주체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자 결국 우리가 보게 되면 처음 첫 강의에서 샤르트르에서 타자의 시선 속에서 결국 주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타자의 시선 속에서 주체가 인정되는 것처럼 바로 그리고 메를루 폰티에서도 언급했던 것이고, 계속 언급했던 것이지만 다시 라캉에 있어서 주체라는 것은 타자의 이미지, 타자의 시선 속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자적 이미지를 라캉은 이마고라고하고, 이마고는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모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마고는 한편으로는 주체를 소외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형성을 도와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계의 타자는 진정한 타자 결국 주체로 환원 불가능한 타자가 아니고 전도된 이미지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전도된 이미지일 뿐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욕망의 첫 번째 소외**가 일어나고 모든 대상은 결국 나르시시즘적인 격자를 통해서만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상상계속의 타자 거울 속에 비춰진 타자는 나의 진정한 타자 결국 진정한 타자라는 것은 나의 주체가 절대로 환원될 수 없는 큰 타자, 그렇지만 거울속의 비춰진 이미지는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완전히 환원 불가능한 큰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 여기서 첫 번째로 욕망의 소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요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인식하거나 이해할 때 결국 나르시시즘적인 격자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상상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울단계는 주체가 구성되는 최초의 순간인 동시에 영혼이 분열되는 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어떻게 보면 형성이 됨과 동시에 그 순간 주체가 분열되는 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거울에 투영된 이미지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면서 사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주체에 대해 타자이고 자아는 거울에 투영된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 이미지를 자기 것을 취하게 되고 그럴 때 자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아에서 타자가 발생하는 것은 취함과 동시에 사후로 발생하게 되고 그 때 본질적으로 결국은 주체에 대해 타자이고 주체는 신체적으로 미숙한 아이가 느끼는 조각난 몸의 환상에서 오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 메를루 폰티와 라캉의 주체 분열

그래서 라캉은 주체의 자의의식이 이처럼 기만적이고 허위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미지에서 진리의 확실한 출발점을 삼는 코기토에서 산출된 모든 철학에 반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기코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주체, 항상 뭔가 확실한 토대에서 그 진리가 출발한다고 할 수 있지만 라깁 식으로 본다면 우리의 진리는 허위, 오인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미지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코기토에서 출발한 모든 철학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라깁이 상상계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깁은 인간이 갖는 공격성의 근원은 거울 속 타자화 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주체의 적대감과 불안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주체의 분열에 대한 메를루 폰티의 사유의 유사함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깁 이야기에서 거울단계에서 상상적 이미지는 나르시시즘적 환호,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보는 순간 기쁘죠. 그러니까 환호성을 부르는 것과 더불어서 바로 그 순간 자아와 분열된 주체를 보기 때문에 분열 속에서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에 따른 소외의 불안감이라는 양면성을 갖게 해준다고 보는 것에 반해서, 메를루 폰티의 거울은 고유한 몸으로써의 주체가 개별적인 주체이면서 이 주체를 에워싸고 침투해 있는 보편적인 사례라는 존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가 타자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보는 주체의 시선이 이미지로 대상화된 타자에게 어떤 적대감이나 불안한 감정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타자와 나가 하나의 살로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호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메를루 폰티에게서 거울은 내가 보는 자인 동시에 보이는 것 나타나고 보이는 것과 보는 자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거울의 이미지는 단순히 나의 껍데기 외부 아니면 나의 창백한 환영, 거짓 이미지라는 환영적인 복제가 아니고 고유한 몸의 가역성, 보면서 보이는 것인 가역성으로서 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를루 폰티는 거울을 통해서 불안함이나 공격적인 것을 띄기보다는 거울을 통해서 좀더 타자와의 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좀더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눈과 정신에서 메를루 폰티가 언급한 것을 인용해서 이해하자면

- 인간의 몸은 보는 것과 보여 지는 것 만지는 것과 만져지는 것 하나의 눈과 다른 눈, 손과 손사이의 일종의 교차가 일어날 때, 감각하는 것과 감각되는 것 사이의 광의가 번쩍일 때 존재한다.

바로 이런 가역성 속에서 타자와 교직 교차 속에서 서로 하나의 살로서 보이지 않는 어떤 공동체이지만 소통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상상계와 이미지 - 주체의 소외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거울 속에서 시선과 응시의 분열 이 단계에서 결국 바라보는 주체의 시선과 거울 속에 있는 타자의 응시가 분열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 두 번째, 거울단계에서 그럼 상상적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론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자아형성에 많은 영향을 합니다.

라깁에 있어서는 비록 거울단계가 오인의 단계이고 주체가 소멸 분열 소외되는 단계이지만 주체의 형성뿐만 아니라 상상적인 것이 순전히 가상이나 허위가 아니라 이미지들을 매개로 주체가 투사되어 형성된 현실세계이며 바로 이러한 상상적인 것이 가상이나 허위이지만 이것이 결국 **현실세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가상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체가 투사되어 형성된 현실의 세계에 한 단면이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실세계이며 의미의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상계는 주체가 구성될 때 가장 먼저 작용하지만 그것이 구조화 되고 주체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국 상징계의**

작용에 의해 가능합니다.

- 상징계의 언어적 개입에 의해서 상상계적 동일시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상계는 이미지에 의해 언어에서 의미작용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언어가 소통되고 의사전달의 매개가 되는 상상계의 기의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상계는 결국 상징계라는 다음 단계, 상징계에 의해서 상상계의 의의가 좀더 확실하게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체는 상상계를 거치면서 나와 타자라는 상호 주체성의 구조에서 가시화된 주체인 자아, 에고(ego)로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면서 외부세계와의 관계가 시작되지만 이러한 자아가 주체의 타자처럼 작용하면서 주체를 소외시키는 소외의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은 주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주체를 소외시키는 어떤 운명에 놓이게 되는데 결국 상상적인 자아와 주체의 분열은 연표주체와 연술행위의 주체의 분열과도 연결되고 이것은 주체를 분열시키는 언어의 이중화된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체의 분열은 자아의 허구성과 주체의 소외를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라캉은 데카르트의 코키토를 상상계에 속하는 허위적인 것이며 코키토는 주체를 소외시키는 이미지라고 비판합니다. 라캉은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내 모습을 거울처럼 간주하면서 이 **자아를 중심으로 대상들을 밀어놓을 때만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 데카르트의 코키토란 자아를 가정하고 자아가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주체는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구성되고 타자에 의존함으로 주체의 욕망도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명징한 어떤 것으로도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제일 철학으로서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키토 에르고숨>에서 그 코키토란 것이 라캉이 보기에는 어떤 상상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되고 이러한 상상계의 허위 거짓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기반하여 우리의 어떤 타당한 인식이나 지식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상징계의 주체와 상징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징계에서의 기표와 주체의 관계

▲ 상징계와 주체의 형성

라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른 연구보다는 요 번 제 수업에서 시선과 상상적인 것에 관한 저의 강의 주제에서 상상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오늘 수업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했고요. 그러면 잠깐 쉬었으니까 상징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징계에서는 주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결국 상징계에서 주체라는 것은 어떤 기표의 논리 속에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라캉의 상징계는 소쉬르, 구조 언어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소쉬르로부터 차용한 기표의 논리에 입각해서 이해할 수 있고 기표의 논리는 결국 합리주의적인 태도와 정신분석을 과학으로 재구성하려는 입장이고 라캉은 이러한 **기표의 논리에 의해 프로이트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업초반에 말씀드린 ‘도둑맞은 편지’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미 잘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서 편지가 갖고 있는 편지의 기표의 의미, 문자로서 편지로서 문자나 편지가 결국 주체를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개입으로 어머니와 분열되고 또 타자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상징계의 진입과 더불어 진정한 주체가 된 어린아이는 자신의 욕망과 타자와의 구별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징계에 들어와서 아이는 자신의 욕망이 무엇이나 또 자신과 타인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대상 a 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대상 a 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환원된 후 인간은 하나의 주체가 되고 더 이상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면서 **대상 a 라는 것은 자신을 주체로 만들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입니다.**

대상 a 는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갈 때 상상적 남근이 깨지게 되면서 어머니의 욕망이 결국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상상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갖고 있던 어머니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고 또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가면서 아이가 갖고 있던 욕망이 결국은 상징계에 말로 표현되지 **욕망이 요구로 못하면서 거기에 결여, 결핍을 느끼게 되고, 하나의 결핍과 결여는 공백으로서 남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대상 a 라는 어떤 존재가 차지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공백, 결핍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욕망이기도 하는데 바로 그 대상 a 의 자리가 바로 상징계에서 어떻게 하나의 주체로 환원이 되는가?**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상징계입니다.

거기 괄호에 X, Y 라는 대문자 영어 표기는 라캉이 세미나 논문을 여러 번 썼는데 라캉의 세미나 11 권이 시선, 눈과 응시에 관한 내용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있고 특히 시각예술에서 눈이라든가 시선 응시에 대한 시각예술의 이론, 시각예술에서 재현의 의미나 총동 또는 향, 이런 것들을 주로 세미나 11 권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될 영어 표시는 바로 세미나 11 권을 약자로서 대문자로 표기한 것이고 아직 세미나 11 권은 한국에 번역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문으로 된 책과 불어로 된 책이 있는데 저는 불어로 된 책을 참고 하였고요.

▲ 상징계에서의 기표의 논리

상징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표의 논리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라캉은 소쉬르의 기호에 관한 이론을 수정해서 아까 소쉬르의 기호이론을 받아들이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수정을 합니다.

소쉬르의 부가설명을 하자면 소쉬르에 있어서 의자라는 기호는 의자라고 하는 기표, 걸으로 드러나는 기표와 의자가 갖고 있는 의미 기의, 즉 기표와 기의가 결합되어서 하나의 기호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소쉬르의 기호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소쉬르에 있어서는 기표와 기의가 똑같이 대등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캉은 소쉬르의 기호이론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써있는 것처럼 소쉬르의 기호이론을 수정해서... (컴퓨터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썼어요. s 슬래시 S 하고 가운데 나뉘는 선이 / 있고 그 위에 S 가 있죠.) 다시 쓰게 되면 분모 작은 소문자 s 분의 대문자 S, 소문자 s 는 기의를 뜻하고 대문자 S 는 기표를 뜻한다.

결국은 소쉬르에 있어서는 기표와 기의는 동일하게 중요했지만 라캉에 의해서는 기표보다는 기의가 더

중요한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표를 대문자 S로 쓴 것이다. 결국은 S 가운데 붙어로는 띠레라고 하기도 하고, 슬래시라고 하기도 하고 소문자 s 분의 대문자 S를 수립하고, 여기서 **기표에 대한 기표에 우월함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소문자 s 분의 대문자 S입니다.**

소쉬르에게서 기호는 기표와 기의는 안정적인 결합을 이룬 반면 라캉에 연상식은 있어서 둘 사이를 나누는 밑줄로 둘의 분류를 주장하고 **즉 소쉬르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호는 기표와 기의가 딱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라캉에서는 이렇게 둘로 나뉘면서 기표를 중심으로 상징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기표의 논리입니다.**

라캉에게서 기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세 가지 특성을 묶을 수 있는데 바로 첫째 소쉬르는 언어의 최소단위를 기호로 보는데 반해서 라캉은 기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표는 의미 없는 순수차이의 단위로 의식적 무의식적 담론을 형성하고 주체를 발생시키는 근본 요소로 주체를 초월한 언어의 물질적 실재**라고 보았습니다.

순수차이인 기표의 작용을 통해 의미의 세계인 상징계가 만들어지고 주체의 운명을 규정한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라캉은 무의식의 구조를 기표의 논리로 설명하기 때문에 무의식의 본성은 주체의 생물학적이고 역동적인 리비도로 본 프로이트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이트와 라캉의 차이점을 들 수 있는데요. 무의식의 구조 무의식의 핵을 프로이트는 리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캉은 무의식의 핵 구조를 리비도가 아닌 바로 기표의 차이 나는 기표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고 무의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표의 논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은유와 환유

둘째 라캉에 있어서의 기표의 두 번째 특징은 **기의는 기표 밑으로 끊임없이 미끄러져 고정된 기의는 존재하지 않고 기표의 연쇄적인 사슬형태만이 변별적인 체계 속에서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표들의 대체와 연결과정의 은유와 환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유와 환유는 다시 설명하겠지만, 예를 든다면 사랑은 고통이다. 사랑은 감기이다. 사랑은 열정이다. 사랑은 00이다. 이런 식으로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기표들이 계속 많죠.

하나로 결정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는 기표들로 인해서 사랑의 의미가 계속 연결되고 미끄러지는 것이죠. 하나의 기표로 정의될 수 없이 사랑이라는 개념, 의미라는 것은 끊임없이 연결되는 끊임없이 연쇄적인 기표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연쇄적인 사슬형태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연결되는 은유와 환유, 환유라는 비유법은 커다란 부분, 전체에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분이라는 것은 전체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전체로 나아가는 작용을 갖게 되는 데 욕망이라는 것은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이때 욕망이 충족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욕망은 또 다른 욕망으로 또 다른 욕망으로 계속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결여된 결핍된 부분은 계속 끊임없는 다른 욕망의 환유작용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고 그것은 완전한 충족은 가능하지 않지만 가능하면 환유의 작용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기표들도 마찬가지로 기표의 연결과정은 은유도 있지만 은유로 대체되는 은유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환유작용까지 포함하고 있죠.

▲ 상징계와 주체

기표가 주체를 대치함으로써 상징계를 완성하고 무의식적 욕망을 발생시킨다. 기표라는 것이 결국 나는 누구다. 라고 했을 때 하나로 완성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표에 연쇄되는 형태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기표가 주체를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둑맞은 편지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도둑맞은 편지에서 주인공 주체라는 것은 어떤 한사람 왕비나 대신이나 왕이나 뉘엿이 아니라 거기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편지, 문자 바로 기표인 것처럼 기표가 문자를 대치하고 그래서 문자가 상징계를 완성하고 바로 그것이 무의식적 욕망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기표의 논리에서 세 가지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는 상징계의 주체는 기표의 논리에서 기표의 순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징계는 라캉이 주체형성의 삼위론 속에서 결국 상징계의 지배를 받는 표상들의 질서인 상상계와 상징계를 넘어서는 절대적 질서인 실재계의 중간에 속합니다.

주체형성의 3 위론 첫 번째는 상상계 그 다음은 상징계 그 다음은 실재계 **결국 상징계는 상상계와 실재계를 연결해주는 중간**이다, 상징계는 언어의 추상적인 구조와 형식이고 주체에 선행하는 선행적 질서로서 무의식을 규정합니다.

즉 상징계란 것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낀 말의 담론의 세계, 말속에서 문자나 말속에서 의미가 형성되고 문자나 말 언어의 담론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선행한다는 것이죠.

제가 있기 전에 말의 세계가 있고 담론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주체가 먼저 주체가 선행하나 말이 선행하나 굳이 따졌을 때, 저나 여러분 있기 전에 이미 말이 선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상징계란 것이 주체의 선행하는 선행적 질서이고 바로 그것이 무의식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고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저는 한국말 한국어가 없으면 저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죠. 저의 수업내용이라든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도, 뜻, 이런 것은 말 특히 한국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 앞에 이전에 선행적인 질서로서 말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이미 선행적인 원리나 규칙으로서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나 의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의식도 마찬가지로 주체의 내밀한 욕망이나 억압된 표상과 기억의 공간이 아니라 주체에 작용하는 말의 효과라는 뜻입니다. 프로이드가 무의식이라는 것은 억압된 것의 표상, 예를 든다면 최면술이라든가 자유연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욕망이 표상된다고 했는데 라캉이 봤을 때 무의식이라는 것이 주체의 작용에 대한 말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주체는 기표의 순환에 의해 주어진 역할을 함으로써 존재합니다. 우리가 존재한 것은 결국 말을 통해서 말을 표현함에서 우리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고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속하지 않고 돌고 도는 도둑맞은 편지가 의미하듯 편지 레트 문자를 상징하는 것인데 **편지는 특정인에게 속하지 않고 도는 것을 순환할 때마다 편지를 둘러싼 상이한 의미를 발생시키며 주체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합니다.

첫째, 상징계는 문자에 의해 구성되며 결국 편지는 내용이 배제된 기표입니다.

둘째, 편지는 문자는 주체의 역할과 위상을 결정합니다. 편지가 주체를 결정합니다. 주체가 문자(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셋째, 문자는 반복됨으로써 상징계는 채워질 수 없는 결여를 채우고자함으로 반복을 특징으로 합니다. 문자는 계속 반복이 되고 순환이 되죠.

우리는 말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주체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은 표현함으로 해서 들어맞아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표에 의해 대쳐 되지만 끊임없이 대쳐되면서 사슬처럼 연쇄과정에서 완전히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끄러집니다.

틈이 생기고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결여가 나타나고 결여를 통해서 욕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징계의 주체는 언어의 효과이므로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기표에 의존함으로써만 아슬아슬하게 자리를 잡는 주체와 기표의 세계가 정신분석이 겨냥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캉은 동일성과 실체에 반대되는 주체이론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주체의 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점이 다른 후기구조주의자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기구조주의 요즘 말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서 주체의 죽음 주체의 해체 주체를 해체시키고 주체를 거부하는데 라캉은 비록 절대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주체는 거부하지만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절대적인 주체가 아니라 기표 속에 끊임없이 미끄러지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주체인긴 하지만 여전히 주체를 포기하지 않고 주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부성은유와 물 자체

세 번째 그런 주체란 무엇이나 무의식적 주체이면서 무의식적 주체가 대타자라고 정의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상징계의 질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테제 이것은 라캉의 용어인데 정신병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상징계에 존재하지 않고 계속 아이가 어머니와 동일성속에 어머니에 집착하는 것이 정신병의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마마보이 실제로 항상 어떤 일을 발생했을 때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거나 의사결정을 못하고 항상 어머니와 상이 어머니를 통해서만이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의 의도나 욕망도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 마마보이가 어떻게 보면 정신병의 일종이죠.

결국 상징계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해야 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수용하는 것은 상징계에서 남근을 갖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고 무의식의 근저에서 남근에 대한 욕망이 깔려있습니다.

따라서 **무의식은 부성은유 억압에서 발생하며 부성은유가 성공하면 최초의 욕망은 환상의 형태로 상징계에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때 부성은유, 아버지의 이름으로 개입한다, 상상계에서 아이가 엄마의 동일성에 대한 꿈이 깨어진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개입된다는 뜻인데 실제 아버지라기보다 언어, 말로써 개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언어나 말을 통해서 소통하지 못하고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게 되고 이미지를 통해서 소통의 과정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배움으로써 말을 통해서 상징계로 들어간다, 그때 부성은유,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성은유의 억압에서 사라진 어머니의 욕망은 상실된 최초의 기표가 되면서 기표들의 연쇄에 의해서 절대로 메워지지 않는 영원한 구멍으로 남게 됩니다.

바로 이 영원한 구멍이 의미화의 연쇄는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뭔가 구멍으로 남으면 또 그것을 채우려고 어떤 의미가 대쳐되고 또 기표가 대쳐되고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그 빈공간은 영원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채워질 수 없는 공간으로 남게 되는데 그것이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의 대상으로 놓이는 물, Ding 이라고 한다. 물, 칸트가 말하는 Ding an sich 라고 할 수 있는데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Ding 이라는 것, 칸트에게 Ding an sich 현상,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감각할 수 있는 것, 너무 저쪽에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인식할 수 없는 것 단순히 우리가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영원히 상실된 대상으로 실재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은 결코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언어를 초월하는 영역이고요. 따라서 부성은유는 결여를 가져옴으로써 욕망하는 주체인 무의식의 주체를 낳게 됩니다.